

놀 줄 아는 도깨비들 다 모여라!

열 번째 광주예술난장 굿판 오는 25~26일

씻김굿·도깨비고사·합동 공연 등 풍성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는 ‘굿’과 ‘공동체’의 문화였다. 솟대타기, 열른(마술), 살판 등의 전문연희를 비롯해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같이했던 소리와 춤, 그리고 미신으로 내몰려 있는 곳까지 마당과 장터 등 민중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희로애락을 함께 해왔다. 사람들은 서로 광장을 이뤄 흥과 신명을 함께 해 왔지만, 일제 강점기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수많은 공연 연희들이 사라졌다. (사)전통문화연구회 알쭉하는 사라진 연희를 발전시켜 왔다면 어떤 판이 벌어졌을지에 대한 상상으로 오는 25일과 26일 10번째 광주예술난장 굿판을 벌인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광주예술난장 굿판의 굿물은 ‘도깨비’다. 우리 안에 있는 모순을 뜻하는 도깨비는 이번 축제를 통해 벗어날 것이 무엇인가를 떠올리게 만든다. 또, 남성을 떠올리게 하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도깨비 이야기와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 좋고 나쁜을 떠난 도깨비의 다양한 측면을 들여본다.

판마당 축제는 서양과는 다르게 영신-오신-송신이라는 전통축제 방식을 따른다. 영신과 송신에서는 각 진도 도깨비고사와 도깨비 놀음 공연을 통해 개막·폐막식을 진행하고, 오신에서는 타악그룹 열쭉, 훌, 하망세, 악단광칠 등 8개의 레지던스 팀을 초청해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다. 오신에 참여하는 팀은 도깨비를 주제로 새로운 전통과 실험을 통해 관객과 만나기 위한 창작 공연을 준비 중이다.

또, 축제 공간을 무대에서 마당 중심으로 옮겨, 관객들이 공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난장 문화의 특징을 보인다.

항구내마당에서는 관객들이 도깨비로 직접 변신해본다. 도깨비인형극과 동화구연, 더운 날씨를 위해 도깨비풀(물놀이장)을 마련해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게 구성됐다.

유일한 실내 공연 신진마당에서는 광주 2팀과 외부 2팀의 창작 작품을 통해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전통예술의 다양한 매력을 선보인다.



지난해 진행된 광주예술난장 굿판 ‘신진마당’

25일 토요일에는 씻김굿을 진행한다. 지난해에는 무명의 5·18 열사들을 위한 굿이었다면 올해는 소안도 항일운동가와 한국전쟁 전후 피해자를 위한 굿을 진행한다. 소안도는 일제강점기 당시, 항일운동이 치열했던 곳으로 69명의 독립운동가와 20명의 독립유공자 등을 배출했다. 잊혀져가는 소안도의 영령들을 초대해 술과 음식, 노래와 춤으로 한을 달래는 ‘굿판’을 연다.

이날 굿판에는 진금순 무형문화재 신안씻김굿 예능보유자가 함께 한다. 모든 행사가 끝나 후 오후 10시부터 시작

되는 씻김굿은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26일에는 도깨비를 달래기 위한 도깨비고사가 진행된다. 전설에 의하면 영광 우평마을은 400년 전 도깨비가 살던 터였다고 한다. 사람들이 살기 위해 마을에 들어오면 도깨비들과 시비가 생겨 사람들은 도깨비가 원하는대로 제사를 지냈다. 이번 도깨비굿은 400년 동안 이어진 사람과 도깨비 사이의 약속인 셈이다.

이에 앞서 광주예술난장이 조금 더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18일 대인예



지난해 진행된 광주예술난장 굿판 ‘굿마당’

술시장에서 소통마당 ‘도깨비썰전’을 개최한다. 전고필 대인예술시장이장 총감독이 사회자로 나서 굿물에 대한 깊이 있는 얘기와 굿판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즐거운 상상을 펼치는 마당으로, 구수한 입담을 자랑하는 도깨비 박사들의 피튀기는 썰전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타악그룹 열쭉의 ‘두두리’, 섬진강 도깨비마을의 ‘도깨비인형극’, 창작그룹 판박의 ‘깨비야 놀자’ 등의 공연도 함께 어우러진다.

한편, 이번에는 사전 예약을 통해 티켓 10동을 대여해준다. 별도의 비용 없

이 입장료만으로 즐길 수 있으며, 샤워 시설과 조리시설이 다 갖춰져 있다.

김양균 총감독은 “이번 축제의 핵심은 관객들이 자신의 삶을 바꾸는 데 있다”며 “굿판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에 갇힌 몸을 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광주예술난장 굿판의 본 행사는 오는 25~26일 대촌전통문화커뮤니티센터에서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된다. 입장료는 각 1일 1만 원.

문의 062-676-3844. /이보람 기자



“우리 아이들이 하루하루가 달라졌어요”

우제길미술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인기

폭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름방학기간 예술활동으로 자아정체성을 찾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 가는 아이들이 있다. 우제길미술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어서와, 나를 찾는 미술관은 처음이지’는 예술과 미술 심리를 융합해 아이들의 우뇌 활성을 돕고, 심리적 안정감과 자존감을 높이는 프로그램으로 인기가.

프로그램은 지난 4월 28일부터 시작

됐으며 1~3기 각 8회차로 진행 중이다. 오는 25일까지 2기 수업이 운영된다.

수업에 참여한 양우혁(초1), 준혁(초3) 형제는 “매 회 다양한 수업이 있어서 좋다. 내년에도 다시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김도 군의 어머니는 “미술관에 다녀온 후 자랑스레 이야기를 들려주고 매주 달라지는 프로그램

끼에 있음을 몸으로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제길미술관 김차순 관장은 “입체적이고 자유롭게 나를 표현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작품의 완성도 보다는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아이들이 결과물을 자랑스러워 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미술교육이 아이를 얼마나 즐겁게 만드는지 다시금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교육을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다”고 전했다.

한편 우제길미술관은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참가자 중 35%를 소외계층 교육생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연수 기자

김성후 교수의 자동차로 유럽여행

<23> 스페인

스페인 지중해 연안의 최대산업도시로서 항구 도시이고 관광도시인 카타루니아 지역의 중핵도시인 바르셀로나는 전세계의 젊은 관광객들에게 아주 특별한 곳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에게 마라토너 황영조의 신화까지 새겨진 곳이라서 더욱 각별할 수밖에 없다. 황영조는 1992년 그 곳의 유명한 동산인 문주익 언덕의 가파른 길을 죽을힘을 다해 뛰면서 손기정 이래 다시 한민족의 끈기를 발휘했다. 그리고 우승했다. 그래서 그의 발자국은 문주익 언덕에 있는 종합경기장의 길 건너편에 새겨져 있다. 기념비도 세워졌고 한국의 경기도와 자매 결연을 한 뜨거운 우정도 오뎀이 동반과 석판에 텍스트로 새겨져 있다. 7월20일 프랑스 마르세유와 인근 자연공원에 위치한 농촌관광을 마치고 몽펠리에를 거쳐 드디어 밤엔 바르셀로나에 입성했다. 프랑스엔 동네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각가지 방식으로 징수하는데 그간 한 번도 실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스페인에 입경하고자 할 때는 어디 서부터 고속도로를 이용했는지 취조를 당하는 듯한 질문을 받았다. 몽펠리에를 기억하고 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들도 그대로 믿어 주었다. 그러나 만약 도시명을 대지 못했다면 우리의 출발지는 시골길을 장시간 이용했는데도 더 멀리 어디로 기록될지 모를 일이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유명한 말이 있다. 우리의 바르셀로나 첫인상이 꼭 그러했다. 광주 규모의 인구를 가진 그 곳은 밤에 도착해 골목을 헤매고

다닐 때 둘러보니 깔끔한 곳이 아니었다. 전통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지도 않았고 부유한 느낌도 들지 않았다.

그러나 사방에 호텔이 널려 있는데도 도저히 방을 잡을 수가 없었다. 옆에 무수히 깔려 있는 호텔도 빈방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교외로 퇴장하여 숙박해야 했다.

다음날은 금요일인데 되도록 많이 구경하기 위해 이른 아침에 우선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을 찾았다. 주변 사방에 짙게 깔려 있는 인파가 어찌나 많은지 깜짝 놀랐다. 긴 줄이 있어 그곳에 일행을 세워놓고 입장권을 살까 했지만 그건 시티투어 승차대기 행렬이었다. 이어 매표소를 제대로 찾아갔는데 오후 표까지 살 수가 없었다. 이른 아침에 도착했는데도 오후 표까지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니... 15분 단위로 입장권이 발행되는데 시간이 늦으면 무효까지 된다는 점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예정에 없었던 곳이라 사전지식이 없었으니 당황한 것은 당연했다. 관광전문가로서 오버투어리즘, 즉 과잉관광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곳이라는 점은 알고 있었어도 이 정도로 관광객이 몰려드는 곳은 처음 몰랐다. 즉, 빈방이 하나도 없고 빈 입장권이 하나도 없는 끔찍한 현실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

스페인인 관광대국이다. 지금은 관광으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광산업이 경제의 11%가 된다. 2017년에는 8,200만명의 관광객 유입으로 세계관광대국 2위가 되어 최근에 이탈리아와 미국을 추월하는 기염을 토했다. 주요 고속도로 유럽국가에 비해 낮은 물가, 플라멩고와 투우경기의 전통, 이슬람 유적, 세계적인 천재 건축가 가우디의 건축문화 유산과 유명 화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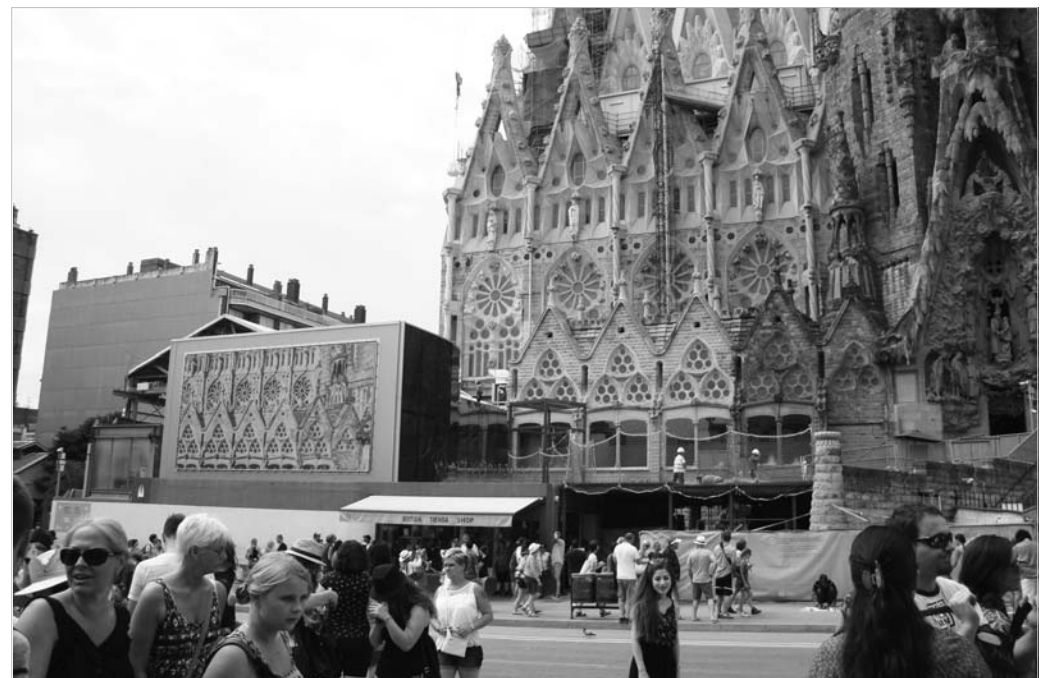
아하, 그곳에 바르셀로나가 있었네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

의 흔적 등에 이끌려 세계 각국에서 관광객이 대거 몰려오고 있다.

이 해 여름 8월 17일엔 바르셀로나의 보행자 전용도로인 람블라스 거리에서 끔찍한 차량테러로 인해 13명이 죽고 100여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상자들이 속한 국가 숫자는 30개국에 넘었다. 다음날인 18일 새벽에도 인근 남부 해안도시 캄브릴스에서 차량돌진 연쇄 테러가 발생했다. 테러가 없던 스페인에서 두 번의 연속 테러는 여름 휴가철 관광 성수기에 외국인 여행객들이 밀집한 관광명소를 겨냥했다는 점에 서 관광업계가 받은 충격은 더 컸다. 그래서 어떤 유명 영국신문은 스페인의 여행업 저물고 있고 테러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보도하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의 관광객들

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스페인의 관광산업은 아직도 고속질주를 하고 있다. 그만큼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여행자들이 찾아온다. 한편, 예술과 정열의 도시 파리가 있고, 낭만적인 지중해가 있어 관광대국을 자랑하는 프랑스는 아직까지는 관광객 유인에 있어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곧 스페인에 추월당할 만큼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해 8월 바르셀로나의 중심가에서 발생한 대규모 차량테러와 하반기에 해외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카탈루냐 지방이 분리독립 움직임으로 어수선했어도 전 세계의 관광객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곳으로 몰려들었다.

세계관광기구에 의하면 지난해에 유럽은 테러

가 자주 발생했는데도 관광산업이 8%나 증가했다. 지중해의 푸른 바다와 뜨거운 태양, 그리고 다양한 문화유산과 찬란한 역사에 세계인들이 여전히 매료되는 것이다.

다른 유럽국가를 여행하고 이곳으로 들어온 여행자들은 유럽이면서 유럽과는 뭔가 다른 분위기에 아찔한 호기심과 더불어 무언가 알 수 없는 묘한 환상을 느끼게 된다.

다음 번엔 바르셀로나를 또 다루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자 한다. 한국으로 떠나오기 위해 다시 코펜하겐까지 자동차를 운전했지만 바르셀로나에서 독자와의 이별이 어찌지 더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동신대 교수·호텔관광학과